



국학원 효충도 여름 캠프

## CONTENTS

### 특집

- 1 경북국학원 제 19기 천부경비 제막식
- 2 미니 인터뷰 - 유갑섭 경북국학운동시민연합회장  
 좌담 - 박주아 경북국학원 사무처장  
 최수민 안동국학원 원장  
 황정집 안동국학원 사무국장

### 독자기고란

- 6 홍영호 천안중학교 교사 - 안동 천부경비 제막식을 다녀와서
- 8.15 광복절 특별행사
- 8 2013년 제 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행사

### 국학원 특별 방문

- 13 엘살바도르 호아킨 로데스노 학교 글로리아 교장

### 포토뉴스

- 14 드림스타트 여름 캠프
- 18 서울 특수 분야 교사연수 / 대구 '국경일 이야기'  
 제주 여름건강체조 - 경침뇌파진동  
 121회 국민강좌 '무속신앙과 단군의 연관성'

### 19 전국 국학원 단신

- 20 9월 국학교육 & 행사 일정
- 21 일지희망편지 '강가에 서서'



## 유교의 도시 안동 마무골에 활짝 꽃피운 천부경의 정신

경북국학운동시민연합 주최, 경북국학원, 안동국학원 주관, 제19기 천부경비 제막식 열려

지난 광복절, 경북국학원에 매우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바로 경북국학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하고 경북국학원과 안동국학원의 주관으로 안동시 운안동에 제19기 천부경비 제막식을 열게 된 것이다.

경북과 경기도 국학회원들, 도의원 이영식, 안동시의원 김대일, 김은한, 손광영, 이재갑 4명과 이항중 광복회 경북 지부장, 이희복 경북도 예협회장, 이동수 전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장, 강진오 평화동장, 장영주 사단법인 국학원 원장(대), 신선영 경북교육협회장 등을 비롯한 지역 유지, 마무골 주민들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염천(炎天)에도 불구하고 이곳 현장의 열기는 대단히 뜨거웠다.

### 안동국학원과 안동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세워지다

작년에 안동국학원에서는 시민강좌를 열었다. 그 때 참석한 한 시의원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마고동천이라는 비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 사실을 접한 안동국학원은 이것이 우리나라 선도 유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여기고 '마고동천비'를 새롭게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마고동천 비석을 정비하게 되었고, 표지석 문구는 국학원에서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안동국학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마고동천 비석 옆에 한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비를 세울 것을 시에 제안하였다. 담당 시의원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이 날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천부경비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국학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모금에 의해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위해 한 명당 최대 기부금은 300,000원으로 제한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 실제적으로 동분서주 발로 뛴 숨은 주역들이 있으니 바로 유갑성 경북국학운동시민연합회장, 박주아 경북국학원 사무처장, 최수민 안동국학원 원장, 황정집 안동국학원 사무국장이 그들이다.



경북 안동시 운안동 마무골(마고정)에 우리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天符經)이 새겨진 천부경비(天符經碑)가 세워졌다.



이번이 제19기인데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천부경비 제막식을 치른 그들을 마고카페에서 만났다. (마고카페라는 이름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인이 마고동천비를 보고 본 따 지었다고 한다.)

"오늘 천손의 철학을 가진 하늘민족이 모여 제막식을 한 것은 안동 뿐만 아니라 경북,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하고 인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미니 인터뷰



유갑섭 경북국학운동시민연합회장

이제 우리 열과 정신, 혼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느낌이다. 1998년 경북지역에 단군상이 세워질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천부경비를 제막한다는 것이 너무 기습적이다.

기증은 그 이후의 유지, 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동시와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밟는데 온 힘을 쏟았다. 천부경비 받침대는 동사무소에서, 마고동천 설명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었다.

그리고 비석에는 동참한 한 분 한 분 이름을 새겨 넣어 그분들이 주인이 되도록 하고자 했다. 천부경비를 세우면서 그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오늘과 같은 제막식을 하게 되었다.



천부경비 뒷면 하단에는 천부경비 건립을 위해 기금을 모아 준 후원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특집

마고동천비가 세워지고 천부경비 제막식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이어 지역사업으로 운안동에 낙후된 벽과 담을 재정비를 하는 가운데 경북국학원은 이에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박주아 경북국학원 사무처장, 최수민 안동국학원장, 황정집 안동국학원 사무국장과의 좌담을 통해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국학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박주아 경북국학원 사무처장

**마고스토리 벽화작업을 한다고 들었다**

박주아 경북국학원 사무처장 : 시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지원 받은 벽화작업사업비가 있었는데 마고동천비가 만들어지면서 마고 관련 스토리로 작업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를 흔쾌히 동의해 준 손광영 시의원의 도움으로 올 3월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00년, 200년이 지나도 만든 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손 의원과 이재갑 의원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안동국학원 장님과 사무국장님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역할이 서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중앙국학원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었다. 장영주 국학원장(代)님이 경북지역의 국학 도시화를 위해 수없이 오고 가면서 컨설팅을 해주었다. 이번 마고동천에 대한 설명 표지석도 국학원장님의 자문으로 완성되었다.

경북국학원의 비전은 유서깊은 안동에 진정한 한민족의 시작, 창세 이야기를 담은 마고스토리텔링 벽화가 완성이 되면 전국에서 이곳으로 국학 투어를 오게 하는 것이다. 추로지향(芻魯之鄉)의 도시 안동에 마고동천비와 천부경비, 마고스토리 벽화가 세워져 앞으로 안동이 국학의 최고 명승지가 될 것이다.

**국학활동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박주아 경북국학원 사무처장 : 국학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흥익활동이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당장 결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 했었다. 하지만 몇 년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학은 당장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씨를 뿌리는 것**  
국학은 당장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거라는 것이다.

요즘은 5분을 만나든 하루를 만나든 그 사람이 나를 만나 '행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한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니 서로 통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관공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한 번 만나면 이 인연이 평생 간다는 마음으로 만나고자 한다.

**일을 할 때 주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나**

최수민 안동국학원장 : 2008년부터 국학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단법인 국학원의 순수성을 전하고 국학을 바로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최수민 안동국학원장

황정집 안동국학원 사무국장 : 일 할 때 늘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늘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받아들여려고 한다. 늘 함께 하진 않지만 보이는 않는 곳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북, 안동 국학원 차원의 비전이 있다면**

박주아 경북국학원 사무처장 : 스피리츄얼마인드에 상응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낀다. 한 단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성공한 단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기준의 성공을 무시하는 단체는 성공할 수 없다. 각자의 역할에 맞는 흥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국학원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관공서와 연계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종교성 오히려 다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잦아든다. 경북에서 가장 큰 관공서와는 현재 주요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가공인단체, 그런 국학원으로 키우고 싶다.

최수민 안동국학원장 : 국학 프로그램인 ‘나라사랑 국경일 이야기’, ‘약손힐링’ 과정이 안동시의 지원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와 연계하여 국학활동을 진행하겠다. 우리열찾기백만 서명운동도 안동 시민들의 99%가 해주었다. 반응도 매우 좋았다.

그리고 홍산문명과 관련된 암벽화(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암벽화)가 있다. 이것을 발굴해 잘 알리고 싶다.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장을 만났더니 이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지역 역사 문화에 대해 이렇게 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최치원 선생 유적지가 바

로 이 근처에 있고 선도 문화 유적지가 정말 많다. 고조선의 원류가 신라에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바로 안동이다.



황정집 안동국학원 사무국장

황정집 안동국학원 사무국장 : 벽화마을을 통해서 마고카페, 마고 벽화투어, 그리고 안동명상센터의 활공 체험 코스까지. 눈으로 보고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는 마고 스토리를 전하고 싶다. 국학기공 차원에서 몸의 건강은 물론, 우리 역사에 대해 계속 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기반은 이미 많이 마련된 것 같다. 안동이 살아야 전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하면 안동은 정말 국학도시 10%가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는 조화로운 경북의 기적창조 여전사 “우리는 하나! 기적을 이룬다!”

## 8.15 광복절, 안동 천부경비 제막식을 다녀와서

- 홍영호 천안중학교 교사, 국학원 부설 천부경연구소 연구위원 -

14일 안동에서 천부경 비문 제막식에 대한 행사의 전화연락을 받고서 잠시 망설였다. 내 차의 상태가 노후되어서 장거리를 가기에 부담도 되었지만, 한창 논문에 대한 구상과 작성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행사에 대한 참석이 부담스러워서, 가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기만히 생각을 해보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과연 논문작성이 우선인가? 아니면 천부경 제막식 참석이 우선인가?

모든 학문의 정점에는 천부경이 있다. 그리고 모든 학문과 논문도 역시 천부경에서 비롯되어 나온다. 그런데 나는 논문작성이 바쁘다는 이유로 천부경 제막식 참석을 생각하려 한 것이다. 이거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고, 혹시 나는 빈껍데기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허전함이 느껴졌다. 내가 혹시 진리의 달을 묘사하려는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실체를 빼놓은 체, 진리의 흔적과 그림자만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다시금 행사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시내에 나가서 타이어를 모두 교체했다. 현대, 바퀴 지지대 쪽이 험겁다고 했다. 그래서 잠시 갈등을 하다가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엄홍길 산악인이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옥심내어서 정상정복을 무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슨 일 이든지 무리한 진행은 사고를 부른다. 차량이동을 포기하고 기차 편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천부경비 제막식 행사를 다녀오니, 참으로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대개가 일상생활에 쫓기고 있다. 하지만, 천부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면서 알고 있다면, 천부경 행사에는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호사다마(好事多魔)] 하고 [도고일척(道高一尺)] 마고일척(魔高一尺)] 라는 격언에서 보듯이,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복잡하게 쫓아오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항마(降魔)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다운 논문이란, 천부경을 중심으로 한 깨달음이 우선이고, 체험이 우선이고, 실천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천부경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모르던 내용들을 속속 알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천부의 기운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논문을 제대로 쓰기 위한 비법이 아닌가 한다.

이번에 마고동천의 천부경비 제막식에 다녀왔는데, 그동안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던, [마고]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생각났다. [마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아기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를 부른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지구 창조 때부터 이어오면서 낳아주시, 생명의 원초적이고, 위대한 근원적 존재인, 생명의 창조주로서의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인 것이다. 지구진화의 장구한 세월을 이어오면서도, 생명창조의 근원적 존재인 생명창조주를 잊지 않고 부르는 외침이고, 생명창조의 뿌리를 찾는 본능적 외침이 바로 [엄마]이다.

[엄마]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낸 단어이거나 소리가 아니다.

[엄마]라는 소리는 태고적 생명의 원천을 부르는 원초적 본능적 소리이므로 생명의 소리 표현이다. 그러므로, 아기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서 맨 처음 부르는 소리가 바로 [엄마]이다.

생명진리의 원음인 [엄마]의 해석은 무엇인가?

[엄마]에서 핵심주어는 [마]이다. 이것은 다음처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어에서 어머니를 [마마]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어째서 [마]를 반복하는가? [마]가 핵심주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 붙인 [엄]이란, [마]의 위대하고 엄숙하고 숭고함을 나타내기 위한 접두사이다.

다음 비문에서 보듯이, [ 麻



홍영호 천안중학교 교사



마고동천비

姑] 라는 단어의 [麻(마)]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부르는 [엄마]소리의 [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麻)]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낳아주신 우주생명창조의 원초적 근원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한자의 음차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姑)]

란, [녀(女)]와 [고(古)]의 합성어이다. 이는 끝없이 오래되고 높은 분으로서,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반복하는 최고의 근원적 최고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동천(洞天)이란, 이상향의 동네라는 뜻이며,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과 통하는 동네라는 뜻이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라고 부르는 안동시의 [마고동천]의 천부경비 제막행사에서, 나는 그동안 의문으로 가지고 있던 [마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천부경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다. 천부경은 민족혼이 되는 것이며, 천지기운의 상징이며 지구혼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안동시의 천부경비 제막식행사는 전국에서 19번째 이다. 전국의 곳곳에 천부경비가 세워질 때, 한반도의 정신이 바로 잡혀지고, 나아가 지구정신이 올바르게 된다고 믿고 있다. 이곳 마고 정자에 앉아 기를 수련하고 선정에 든다면 참으로 하늘의 궁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삼일신고에 나오는 조천(朝天)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아마도 이곳의 천부경 비석이 하늘과 통하는 조천석(朝天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천부]란 하늘이 보호하고 하늘이 응감하고 하늘의 천신께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부경 비석은 가히 하늘의 상징과 같고 마패와 같은 것이다.

천부경 제막식 행사에 앞서 기공수련 사전행사가 있었다. 마치 천부경의 심오한 이론을 눈으로 보는 듯 하였다.

부드럽고 절도 있고 강력한 동작의 기공체조는 가히 천부경의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 보였다.

기공 동작들을 잠시 눈으로 보고 지나가니, 동작들을 흉내내고 따라 익히기 어려운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공수련생들의 맑은 표정과 절도 있고 창조적인 동작과 기운들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아마도 천부경 기운을 많이 받았

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先天天不違 後天奉天時 時來天地皆同力  
(선천천불위 후천봉천시 시래천지개동력)

이는 원래 주역의 경문 중에서 나오는 경구이며, 강증산 저작의 단주수명서에도 있다.

인간이 하늘을 앞서가더라도 하늘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인간이 하늘법도를 뒤따를 때에는 천시를 받들면서 공경하면서 나아간다. 때가 오게 되면 천지가 모두 힘을 함께 해준다. 이러한 천지인 합일정신의 구현과 시작점이 바로 [천부경비문]의 확산과 [천부]정신의 확산이라고 본다.

이러한 천부경 비문을 전국의 곳곳에 세워 놓음으로써 우리나라가 1만 년 전의 찬란했던 전통문화정신을 회복하면서, 오늘날에는 보다 발달되고 행복한 고도의 문화발전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등 물질적 기술보다도, 정신문화가 앞장서야만 인간사회가 파멸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대 지구촌에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거느릴 만한, 고도의 정신문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흥익인간 천부경 문화라고 생각한다.

지구촌의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을 조화와 화합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천부경]정신과 흥익인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전통정신의 회복과 국민문화 활동은 당연히 국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낸 안동과 경북 국학원과 뜻있는 지도층인사들과 시민들에게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국민과 국가 기관이 함께 이끌어 힘차게 진행되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덮는 철학으로써 새로운 한류가 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이다.



마고정자

# 대한민국 산하를 누비며 ‘우리얼 광복’ 을 외치다!!

## 8.15 평화통일기원 전국 달리기 행사 - 전국 16개 시도 2만 여명 참여

우리나라가 용광로처럼 뜨거운 8월, 태양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대한민국 산하를 이어달리며 ‘우리얼 찾기’ 를 외친 이들이 있었다. 국학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10회 바른역사정립 및 평화통일기원 전국달리기 행사에 전국 국학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주요 후원단체이자 주관단체로 참여했다.

8월 1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경북,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16개 시도를 거쳐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국의 강사, 활동가, 후원인을 비

롯해 시민 2만여 명이 땀 흘려 우리 산하를 달리며 열정을 쏟아내었다. 현재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며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가운데 달리기와 함께 우리얼찾기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해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국학원과 국학운동시민연합은 우리얼찾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수능시험에서 역사과목 필수지정, ▲단기연호 복원,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 참석 등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부산 8월 1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을 출발, 금정문화회관까지 88km를 달렸다



**울산 8월 2일**

우리얼찾기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선암호수공원에서 장미터널을 지나 호수공원까지.



**대구 8월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출발, 성서고등학교를 거쳐 출발점으로 6km를 달렸다.



**경북 8월 5일**

구미 구평우체육관에서 원평분수공원까지 9.5km를 이어 달렸다.



### 전남 8월 6일

전남 목포시청을 출발, 목포역 광장까지 3km를 이어 달리는 멋진 국학활동가들의 모습



### 광주 8월 7일

광주역에서 동광주 웨딩클라자까지 4.5km를 달려온 국학강사들.





### 대전 8월 8일

북과 꿩과리를 앞세우고 신나게 바른역사찾기, 우리열  
찾기를 외치며 대전시청 동문에서출발 대전시의회를  
거쳐 대전시청 동문광장으로~!



노병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축하



### 전북 8월 10일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바닷바람과 함께 200여  
명의 시민들과 신시도 배수갑문을 출발 소라  
섬터까지 5km를 달렸다.





**충북 8월10일** 청주개경터미널에서 사창사거리 성안길 상당공원까지 6.7km를 달린 충북 시민들.



**충남 8월 12일**

천안시민들은 국학원 한민족역사문화공원을 출발, 독립기념관까지 6.8km를 이어 달렸다.





### 경기 8월 13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 모인 경기도민들은 동수원 사거리를 거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까지 5.2km를 달렸다.

### 강원 8월 14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출발, 원주시청까지 5.1km 달린 강원 국학원 활동가들



### 서울 8월 15일

삼각지역을 출발, 광화문 열린시민광장까지 3.5km를 달려 15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 “한국의 정신을 알고 나니 뇌교육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엘살바도르 글로리아 교장, 국학원 방문



국학원을 방문한 글로리아 빌러 교장(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에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특별한 손님이 국학원을 찾았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호아킨 로데스노 (Joaquin Rodezno) 학교의 글로리아 빌러 교장 선생님이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는 종합교육기관으로 엘살바도르 정부가 국제뇌교육협회(협회장 이승헌)에 정식 요청한 뇌교육 시범학교이다.

글로리아 교장은 오는 8월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뇌교육 심포지엄에서 해외사례부문을 발표를 위해 내한하여 뇌교육의 뿌리가 되는 한국의 천지인 정신을 배우기 위해 국학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국학원 한승용 사무처장의 안내로 전시관을 둘러보며,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면면히 내려온 천지인 정신과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한 천손문화를 만났다. 또한 한민족의 선도명상과 수련이 현대적인 뇌교육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글로리아 빌러 교장은 “한국의 정신을 알고 나니 우리가 뇌교육을 만날 수 있던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을 알겠다.” 며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국학원에서 드림스타트 여름 캠프 열리다!



지난 10일 경북국학원은 구미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인성 프로그램을 열었다. 평상시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만족하였다고.



중앙국학원에서 지난 8월 12-13일에 대전 대덕구 드림스타트 캠프가 1박 2일동안 열렸다. 총 27명이 참석하였다. 태극기와 북을 이용한 전통놀이게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 인성게임, 나를 알고 우리를 배우는 신뢰게임, 그리고 이를 날 잊지 못할 한여름의 물놀이까지 --- 아이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즐겁고 신나는 방학을 보냈다. 국학원에서의 캠프는 잊지 못할 것이다.



01 버스에 내려 계단을 올라서니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드디어 국학원에~!!!



02 와 건물 진짜크다~~~



03 접수를 하고 내 이름은 어딴지?



### 합심대도 - 전통게임

04 태극기를 잡아라—태극기 게임

05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리는 훌라우프 천재소년

06 북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합심대도 북게임 열쑈 ~



### 멋진 나를 찾아서—인성게임

07 나의 한계를 넘고 넘어 ~~ 연단게임

08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꿈을 적어보아요

09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명상 심취 중





10



12



11



**리더&팔로우쉽-신뢰게임**

10 두 줄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안대를 쓰고 한 사람은 손을 잡아주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11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즐겁게 걸어갑니다. 마치 내 인생의 길과 같습니다.  
12 형!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형은 동생을 의지하고, 동생은 형이 그랬던 것처럼 형의 눈이 되어 줍니다.

**네 꿈을 펼쳐봐-장기자랑시간**

13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가수이지요  
14 조담임선생님과 함께 춤을 ~



14



13



**누가누가 잘 그리나 태극기 그리기 국학특강시간**  
애들아, 태극기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란다. 태극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 된 국기란다 !!



놀 때도 혼을 담아 화끈하게  
— 신나는 물놀이에 폭 빠져~~~



멋쟁이 미남미녀 삼인방 조별 담임선생님~~



엄마 나 일등먹었어 ~!!!



서울국학원에서는 8월 12-14일 상반기 특수 분야 교사연수(15학점)가 진행되었다.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은 앞으로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역사의식교육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잊고 있었던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고 만족해 했다. 8월 19-21일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



대구국학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2일에 초롱 어린이집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국경일이야기' 강의를 하였다. 아이들은 태극기와 무궁화를 그리고 대 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제주국학원에서는 매주 2회 1시간 30분씩 납읍리 경노당을 찾아가 건강관리 강좌를 진행중이다. 특히 경침을 이용한 뇌파진동 수련은 인기만점이다. 지도강사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창조하는 장생하는 삶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제 121회 국민강좌가 열렸다. 사머니즘박물관 관장인 양중승 박사가 '무속신앙과 단군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그는 무속신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단군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한민족 전통문화였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의에 참석한 무속인들도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전국 국학원 단신

▲ **서울국학원** ▷8월 9일 도봉구 치매예방센터 러브핸즈 실시 ▷ 8월 9일 국학원 정회원 선도문화교실 개최 ▷8월 10일 고덕평생학습관 힐링 가족캠프 진행 ▷8월 12일 '2013년 신임 장학사' 30명 대상 브레인 명상강의 실시 ▷8월 12일 교육연수원 장학사 대상 '에너지 힐링 명상' 실시 ▷8월 12일 이태원 주민자치센터 40명 대상 '에너지 힐링명상' 실시 ▷8월 12일 '2013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사 연수 실시 ▷ 8월 13일 국민강좌 참석 ▷8월 13일 '2013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사 연수 실시 ▷ 8월 13일 보육진흥재단 20명 대상 힐링 명상 강의 실시 ▷8월 14일 '2013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사 연수 실시 ▷ 8월 14일 은평구 성은 유치원 해피 뇌체조 강의 실시 ▷ 8월 14일 도봉구 힐링 러브 핸드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및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 **강원국학원** ▷ 8월 14일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경기국학원** ▷8월 3일 화성시 마니산방 단군상양 목조물 철거및 청소 실시 ▷8월 3일 안양소년원(안양정심여지정보산업고) 40명 대상 '대한민국희망 우리에게 있다' 실시 ▷8월 3일 안양소년원(안양정심정보산업학교) 50명 대상 분노조절강의 실시 ▷8월 3일 안양장애특수학교(덕천빌리지) 엄마랑 아빠랑 두드림 교실 개최 ▷8월 3일 수원산후조리원(슈즈메리) 산후기체조 실시 ▷8월 7일 수원 매탄초역사리더쉽 (이순신편) 강의 실시 ▷ 8월 8일-10일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 경기북부 국학원 부스 참여 ▷8월 12일 화성시 시의원 이선주 자문위원 위촉 ▷ 8월 13일 '2013년 제10회 바른역사정립 및 평화통일기원달리기' 행사 실시, 참석 300여명 ▷ 8월 14일 국학교육10마당 중 6마당(이순신편)실시 ▷ 8월 14일 수원매탄초등학교 역사 리더쉽 협동제기차기 실시 ▷8월 14일 매포현대@ 노인정 어르신 30명 대상 건강체조 실시 ▷8월 14일 수원매탄초등학교 35명 대상 돌봄교실,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강의 실시

▲ **인천국학원** ▷인천경찰서 대상 힐링명상 특강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대전국학원** ▷8월 8일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충북국학원** ▷8월 10일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충남국학원** ▷8월 12일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매주 수요일 천안시청 러브핸즈 실시

▲ **광주국학원** ▷8월 12일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매주 토요일 생태힐링명상교실 실시

▲ **전북국학원** ▷8월 10일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전남국학원** ▷8월 6일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8월 9일 어르신 강사교육 실시 ▷ 8월 9일 기술.가정 교사 78명 대상 직무 연수 '학습력향상을 위한 뇌체조' 강의 실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대구국학원** ▷8월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실시 ▷8월 5일 대구시교육청 20대교사 120명 숲 명상 체험 실시 ▷8월 9일 수성대학교 50명 대상 웃음명상 강의 실시 (강사 윤태섭) ▷8월 7일 단군성전 전체참석 ▷8월 10일 대구 패밀리군단 국학원 인시수련 11명 참석 ▷8월 13일 초롱어린이집 국경일이야기 강의 실시 (강사 권옥순)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경북국학원** ▷8월 5일 원평분수공원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실시 300명 참여 ▷8월 9일 영주여고 창의인성 캠프(2일 진행) 3개반 150명 대상 실시 ▷8월 9일 삼척 23사단 수색대대 200명 대상 국학교육(국학이해 및 행복한 군생활) ▷8월 9일 경북청소년수련원 서울,경북 교류 청소년 50명 대상 국학강의 (강사 박선규) ▷8월 10일 구미시청 사회복지과 드림스

타트 가족인성 진행 ▷8월 14일 사회복지과 명상체험 드림스타트 수업진행 90분 9명 ▷8월 15일 안동 마무골 천부경비 제막식 8.15 광복절 행사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경남국학원** ▷8월 15일 제 68주년 광복절 행사

▲ **부산국학원** ▷8월 1일 ' 2013 제10회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행사 실시 ▷8월 7일 강서소방서대원 국학강의

▲ **울산국학원** ▷8월 8일 전문강사 모임 실시 ▷8월 9일 대북경로당 30명 대상 실버케어 봉사활동 ▷8월 12일 옥현중학교 50명 대상 뇌교육 수업 ▷8월 12일 삼평유치원,서생유치원 50명 대상 뇌교육 수업 실시 ▷8월 12일-13일 문화예술평의회 교사연수자 대상 국학 환경 강의 실시 ▷8월 13일 신규강사 보수교육 ▷ 8월 13일 옥현중학교 50명 대상 뇌교육 수업 실시 ▷8월 13일 웅촌유치원 20명 대상 뇌교육 수업 실시 ▷8월 13일 문화예술회관 국학강의 실시 ▷8월 13일 옥동중학교 50명 대상 뇌교육 강의 실시 ▷8.14-8.15, 동천체육관 500명 대상 친환경 ME 강의 및 흥공 만들기

▲ **제주국학원** ▷ 8월 3일 탐라교육원 상담, 보건교사 30명 대상 브레인힐링 강의 실시▷ 8월 3일 탐라교육원 유치원 30명 대상 1정 자격연수 실시 ▷ 8월 3일 한길정보통신학교 분노조절 강의 실시▷ 8월 3일 외도 부영2차, 하귀2리 어르신 40명 대상 자기명상 건강관리 강의 실시▷ 8월 3일 비전형성수업 2시간 실시 ▷8월 7일 하귀1,2리 어르신 40명 대상 자기명상건강관리 실시 ▷8월 7일 외도부영2차 멘탈헬스 힐링브레인 자기명상 실시 ▷8월 9일 도남동 자기명상 건강관리 실시 ▷8월 9일 외도부영1차 멘탈헬스를 위한 심신관리 실시 ▷8월 9일수산리 어르신 40명 대상 자기명상 건강관리 실시 ▷8월 9일 납읍리, 광령1리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실시 ▷8월 9일 비전형성, 심리지원 수업 실시 ▷ 8월 12일 납읍리 어르신 대상 경침뇌파진동 건강강의 실시 ▷8월 13일 신흥리, 하귀2리, 외도부영2차 자기명상 건강관리 ▷8월 13일 어린이 비전형성 수업 ▷8월 14일 하귀1,2리 자기명상 건강관리 실시 ▷ 8월 14일 한경요양원, 외도부영 경침 뇌파진동 건강강의 실시

# 9월 국학교육 및 행사 공지



## 국학원 정기 교육

9/7(토) 인시힐링명상수련 (매주 토요일)  
 9/10(화) 122회 국민강좌(매월 둘째주 화요일)  
 9/14(토)-15(일) 민족혼 (매월 셋째주)  
 9/14(토) 하늘땅사람 힐링아카데미(매월 2, 4주)



## 기업 및 관공서 대상 교육

9월 7일 안행부 주관 "찾아가는 통일학교" 특강  
 9월 10일 통일부 하나원  
 9월 23일-24일 세종시 민방위 특강



## 국학 특강

9월 3일 경기지역 / 9월 5일 강북지역  
 9월 7일 창원지역  
 9월 8일 부산지역 / 9월 9일 대전지역  
 9월 11일 서울지역 / 9월 27일 충북지역



## 청소년 교육

9월 3일 공주 효포초등학교  
 9월 14일 공주 상서초등학교



# 국학원 후원안내

### 국학원 후원방법 (법인,개인)

CMS 월 5천원, 1, 3, 10만원, 기타( )원  
 ▶이체일 5,10,25,30일

후원계좌 우리은행 554-04-109521 농협 018-01-219288  
 우체국 012765-01-007837 ▶ 예금주:(사)국학원

기타 일시불 후원(개인,법인)은 우리은행 계좌 이용



홈페이지 [www.kookhakwon.org](http://www.kookhakwon.org)  
 문의 : (사)국학원 041-620-6700

## 강가에 서거든

강가에 서거든  
 눈을 감고 온 몸으로 흐르는  
 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물 소리를 세포 깊숙이  
 스며들게 하여  
 잠자고 있던 나를 일깨우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흐르는 저 강물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  
 제 갈길을 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서졌다가도  
 다시 돌고 돌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부딪히며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삶은 빛나게 됩니다.



일지희망편지는 국학원 설립자 이승헌 총장님께서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http://www.ilchi.net>

